

COVER STORY



14_worldview

두안 리트핀(Duane Litfin) 전 휘튼대학 총장

지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부어 롯데리조트에서 제5회 국제기독교대학학술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고신대학교, 백석대학교, 한동대학교가 중심이 되어 2년에 한 번씩 주관을 하여 개최하고 있다. 초기에는 미국의 칼빈대학(Calvin College)과 함께 공동 주최하였으나 올해는 휘튼대학(Wheaton College)의 리트핀(Litfin) 전 총장을 주강사로 초청하고, 영국, 일본 등 다양한 나라의 기독교학자들을 초청했다. 본지에서는 김승욱 실행위원장이 리트핀총장을 만나서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과 세계관 운동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 인터뷰 김승욱(편집장)

기조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강연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의 세 가지 기능인 연구, 교육, 사회 봉사 중에 대부분 명문 대학들은 '연구'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총장님께서서는 기독교대학의 우선 목적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연구가 아니라,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연구보다는 교육에 전력해야 한다면 한국의 경우 대학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거나 명성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학문 분야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역사학의 경우 교육에 초점을 맞춘 기독교대학에서도 유명한 교수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휘튼대학의 경우 마크 놀 (Mark Noll) 교수의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역사학교수입니다. 반면에 물리학 같은 분야에서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 분야의 경우 소요연구비의 규모에 따라 구분을 해야 합니다. 연구비가 많이 소요되는 거대과학(big science)은 대규모 연구비를 받아야 연구가 가능하므로, 기독교대학에서 이러한 분야는 아

마 경쟁력을 갖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에 연구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는 소형과학(small science)분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물학의 경우에, - 물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분야도 있겠지만 -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태학의 경우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중요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학 주변에 호수가 있으면 호수의 수질 개선을 위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매우 유용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든다면 경제학도 기독교 학자가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기독교경제학이라는 분야의 논문을 통해서 학술지에 기고할 수도 있고, 특히 크리스천 청중을 위해서 학술적으로 논리 정연한 강연도 가능합니다. 물론 학술적 논문발표 외에는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대규모의 연구중심대학에서는 인정받기 어렵겠지만 크리스천들의 모임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크리스천이 기여할 수 있는 학문분야를 잘 선정한다면 기독교

1) 저서로는 기독교인들의 반지성주의를 다룬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The Scandal of the Evangelical Mind)(MP), 『미국과 캐나다 기독교 역사』(CLO), 『포스트모던 세계에서의 기독교 신학과 신앙』(공저, 엠마오), 『타닝 포인트』(CUP), 『미국의 신: 조너선 에드워즈부터 에이브러햄 링컨까지』(America's God: From Jonathan Edwards to Abraham Lincoln), 『종교개혁은 지나갔는가? 현대 로마 가톨릭 사상에 대한 복음주의적인 해석』(Is the Reformation Over? An Evangelical Assessment of Contemporary Roman Catholicism;공저) 등이 있다.

대학도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기여를 할 수 있고, 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휘튼대학은 미국에서 대학 랭킹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명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휘튼대학은 미국 대학 랭킹에서 매우 높은 대학 중의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120개 정도 되는 미국의 기독교대학 중에 가장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기독교대학들은 대학 주변 지역의 학생들이 옵니다. 칼빈대학의 경우 휘튼에 비해서 지역대학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특히 네덜란드 개혁주의 교단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휘튼대학은 모든 복음주의 교단에서 고르게 진학하는 초교파적인 대학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주의 대학이지요. 그러면서도 매년 대학평가에서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휘튼대학이 정말 기독교대학이나, 빌리 그래햄이 졸업한 대학이 맞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도 치릅니다. 우리는 교수를 뽑을 때 학문적인 성취를 우선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는가? 기독교인임을 선언하는데 주저함이 없는가?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신앙과 학문의 통합도 강조합니다. 칼빈대학은 입학은 쉬운데 졸업하기 어려운 대학입니다. 교육과정을 통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양육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휘튼대학은 규모가 작아서 칼빈대학처럼 많은 학생을 뽑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원자 수는 칼빈대학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휘튼대학이 더 선별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서는 기독교대학은 교회가 아니므로 전도나 선교가 아니라 기독교적 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대학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일차적인 방법은 졸업생들을 통해서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최근에 제3세계에 선교의 일환으로 기독교학교 설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교목적으로 세워진 기독교대학에서도 직접적인 선교보다 기독교대학을 지향해야 하는가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선교사들이 세운 한국의 기독교대학들이 세속화되었듯이, 제3세계의 기독교대학들도 역시 세속화의 길을 걷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학으로써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우리 휘튼대학도 아프리카의 케냐 등에 분교를 세웠습니다. 그러한 학교들은 교회가 아니라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기독교 대학의 임무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인문대학(Christian liberal art college)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생물학, 경제학, 철학, 역사학을 가르칠 때 기독교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기독교대학에서 교육보다는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하는데 열심을 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서 기독교 대학이 세속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세속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교실에서 가르치는 과목과 커리큘럼 가운데 그리스도의 중심사상이 없기 때문에 세속화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경제학을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대학은 주일학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중심사상이 각 학문분야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세속화되는 이유는 학교 행정 시스템에 기독교 정신이 사라지고, 각 교수가 가르치고 연구하는 내용에 그리스도 중심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휘튼대학은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수들에게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교수 선발, 교수 교육 등의 과정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튼대학은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수 채용 단계부터 교수 교육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훌륭한 원로교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앙과 학문을 통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원로(senior) 교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휘튼 대학의 경우 마크 놀 교수가 좋은 모델이 됩니다. 그는 휘튼에서 학부과정을 마치고 시카고의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성경지식과 학문이 특출했습니다. 이러한 통합능력이 뛰어난 학자가 역사학과에 있었기 때문에 젊은 교수들의 멘토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수를 채용할 때 신앙과 학문의 통합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명문대학을 나오고 학문수준은 탁월하더라도 성경지식은 주일학교 수준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학자를 선발하면 안 됩니다. 또한 교수 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휘튼대학에서는 교수를 선발할 때 자신의 학문영역에서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통합했는가에 대한 에세이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그리고 종신직 심사과정(tenure track)에 있는 교수들에게는 2년 후, 5년 후에 각각 평가가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7년째에 학과장의 감독하에 엄격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평가는 학술지에 발표 가능할 정도여야 합니다. 종신직을 받은 후에도 종신직 평가(post tenure review)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합니다.


휘튼대학에서 지난 17년 동안 총장으로 재임하시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학교를 이끌어가는 방향은 어떤 것이었으며, 어떤 변화가 있었는

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학운영을 위해서는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출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대학을 운영한다는 것은 학생선발, 교수 선발 및 지원, 학사행정, 커리큘럼, 도서관이나 연구 시설, 심지어 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다양한 측면에서 모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총장으로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역시 후원금 모금이었습니다. 기독교대학도 재정이 튼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기독교대학이라면 신앙과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른 기독교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적 후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젊은 교수들에게 신앙과 학문을 통합시키기 위한 교육을 시키고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신입 교수들에게 강의부담을 한 과목씩 덜어주고 그 시간에 통합을 위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 5백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매년 25만 달러를 이러한 세미나 및 통합 교육에 투자했지요.

제가 두 번째 기조강연에서 맥스 드프리(Max DePree)의 “예측불허 차단(interception of entropy)”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지도자는 조직체에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비전을 제시하여 예측불허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차단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17년간의 총장재임 시절동안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개념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교수 채용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가장 우선하는 주제가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주일학교 수준 밖에 모르는 지식을 가지고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내 책 *Conceiving at the Christian College*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책은 백석대학교에서 번역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거의 20년간 휘튼대학에서 총장직을 역임하면서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왜 교수들이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시도하지 않고, 이를 두





려워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휘튼대학이 된 것이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한 도구로 기독교세계관을 강조합니다. 마이클 고인과 크레이그 바르톨로뮤가 공저한 <성경은 드라마다(2009)>에서 표현한 것처럼 큰 이야기(grand narrative)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이것을 가지고 통합의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총장님께서서는 강연 중에 세계관이라는 단어 대신에 '그리스도 중심(Christ centered)'이라는 단어를 신앙과 학문 통합의 키워드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관이라는 단어대신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계관(worldview)은 독일어 벨트양사용(Weltanschauung)에 해당하는 영어표현이 없어서 대신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전체 세계를 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매우 강조했고, 모든 우주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일 인치도 없다는 그의 말에 잘 나타난 바와 같이 만유의 주재이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든 안 하든 내가 강조한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것은 카이퍼의 주장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나도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일부에서는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네덜란드 개혁주의 용어라는 비판도 있지만 사실 기독교인의 세계관(Christian worldview)은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Christ centered worldview)'과 완전히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가 강조한 것이고 네덜란드 개혁주의(CRC)가 강조하는 것이다.

성경을 이해할 때 너무 구체적인 구절에 몰입하다가 잘못 해석해서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구체적인 구절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계관적 이해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직신학이 그렇듯이 성경전체의 구조에 집착하다보면 성경의 특정 구절이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텍스트 상에서의 의미를 놓치기 쉽습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는 것과 구체적인 구절들의 깊은 의미를 자세히 살피는 두 가지 접근방법이 모두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 둘 중의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둘 다 필요한 것이지요. 세계관을 너무 강조하면 모자이크의 전체 그림만을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키워드를 더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교수들이 기독교대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일반대학에도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해서 고민하는 그리스도인 학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 세계관동역회 안에는 이런 일반대학교의 그리스도인 교수들이 많습니다. 일반 연구중심대학에서 다른 학자들과 업적 평가 등의 면에서 경쟁을 하면서 기독교적 대안 제시까지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크리스천 학자들도 역시 교육에 더 역점을 두어야 할까요? 이들을 위한 권면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연구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일반대학에서 기독교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려고 하는 교수들에게 어려움이 많음을 잘 압니다. 그분들께 사랑과 격려를 보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너무 모든 측면에서 잘 하려고 하면 지치고 쓰러집니다. 김 교수님께서 이 인터뷰를 하기위해 수고

하고 애쓰는 것을 처음부터 보아 왔습니다. 하루 전에 정중한 이 메일을 보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전문 사진작가를 데려와서 사진을 찍고, 기조강연이 모두 끝난 다음에 미리 준비한 VIP실에서 녹음기를 2개나 준비해서 인터뷰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보니 매우 치밀하게 준비하고 수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잘 하려고 피곤할 때까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십시오. 너무 잘 하려고 애쓰다가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지 않습니다. 일반 대학의 교수로서 뛰어난 학문적 업적도 이룩하고, 기독교학교의 교수처럼 제자도 잘 양육하는 이 양쪽의 요구를 모두 훌륭하게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그만큼 하시기 바랍니다. 김 교수께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이 두 가지 일과 세계관동역회의 행정까지 맡아서 매우 수고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정의 훌륭한 신앙전통을 물려받아서 많은 축복 속에 이러한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제가 주고 싶은 충고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이 제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신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안 리트핀(Duane Litfin)

휘튼대학교 7대 총장으로 1993년부터 2010년까지 17년 동안 총장으로 재임하였다. 재임기간 동안 휘튼대학을 질적, 양적으로 성장시켜 캠퍼스를 크게 확장하였다. 그는 많은 저널에 글을 기고하였고 많은 저서를 집필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널리 읽히는 *Conceiving the Christian College* (2004)는 기독교대학이 지녀야 할 독특한 특징들에 대해 다루면서 기독교대학의 정체성과 기독교 사상의 근본원리 등에 대해 논하는 가운데 보다 기독교대학이 보다 쾌적한 학문과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학력: 학사 (biblical studies) Philadelphia Biblical University
 석사 (신학) Philadelphia Biblical University .
 박사(Ph.D., Communication) Purdue University
 신학박사(D.Phil., New Testament) Oxford University

경력: 1993-2010 Wheaton College 총장 역임(제7대)
 담임목사 the First Evangelical Church (Tennessee주 Memphis 소재)
 부교수 Dallas Theological Seminary
 Purdue University와 Indiana University 에서 강의.

저서: *Conceiving at the Christian College* (Eerdmans, 2004)

